

# 충남관광의 과제와 발전전략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 1) 새로운 관광환경에 적합한 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요구

국제사회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광시장의 확대, 기술개발과 신관광산업의 성장, 관광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과 新관광(new tourism)의 관심 증대 등이 있다.

정치·경제환경으로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진행과 관광 경쟁력 심화, 동북아와 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 증가, 신흥시장(BRICs)의 등장과 관광시장 영향,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환경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KTX개통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 변화와 관광수요의 다양화·다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건강과

환경 중심의 생활양식 확산 등이 있다(문화관광부, 2007).

### 2) 충남 관광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목표와 관광정책의 방향 제시

전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충남의 관광점유율은 숙박관광이 2005년 9.8%에서 2020년 12.5%까지 증가되며, 당일관광은 2005년 8% 수준에서 2020년 10.2% 수준까지 증가하여 충남지역은 당일관광객보다 숙박관광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형태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이인배·최영문, 2006).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변화 특성을 반영한 장기비전과 관광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3) 관광수요와 공급측면에 고려한 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여가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국민들의 여행활동이나 관광체험 추구가 증가했고, 동시에 여가권이나 관광인식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추구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한 체험을 요구하고 있고,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주말을 전적으로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점차 여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고, 사회적 가치관이 가족중심주의로 흐르면서 개성관광의 추구하고 함께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특별관심관광(SIT)을 통하여 가족단위로 체험에 나서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분전환과 동시에 노동에서 찾을 수 없는 생의 다양한 후면적 의미와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은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얼마간의 가시적이고 정략적 개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관광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나아가 문화시설의 확충 및 여가공간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으로 개편 과정에 있고 이제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한국적 상황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간다는 반영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의 관광 붐은 여타 산업과 협업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산업이 가지는 내생적 장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4) 최근 문화관광개발정책과 사업평가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역관광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정계획은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각 시·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하나 이들 계획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와 기초단체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관광자원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국 227개 중 203개소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충남은 총 25개 관광지 중 22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은 178개중 158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4개 사업인데, 이중 충청남도는 문화관광자원개발 9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개 사업이 대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볼 때, 충남에서도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동향과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충남의 관광개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관광환경의 변화, 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과제의 제시와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충남 관광수요와 관광개발의 과제

### 1. 관광정책의 변화와 동향

#### 1) 신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관광문화의 정립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녹색관광, 농촌관광, 자연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뿐만 아니라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 관광, 소집단관광, 연성관광 등 다양한 관광개발방식이 등장하였다.

특히, 이들 관광형태와 개발방식을 통합 신관광(new tourism)은 관광의 양적, 질적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형태이다.

또한, 관광과 산업간 복·융합, 유비쿼터스(ubiquitous), 관광 테크놀로지(tourism technology), 관광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국내 관광의 활성화는 21세기 글로벌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형 관광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토양이 될 수 있다.

## 2) 국가 관광정책변화의 효과적 해결 수단

국내 관광의 활성화는 종래 인바운드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간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유치,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적정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부문간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내관광 여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덜 나가고, 외국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정부의 각종 관광진흥시책, 지역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내관광의 육성은 국내산업의 소프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지역 및 국가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여할 수 있다.

## 3) 신관광 시대 국민·지역·국가발전의 기여도 제고

국내관광의 활성화는 주5일 근무제 시행, 해외여행의 보편화 등 국내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의 관광수용태세는 취약한 상황으로 해외여행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관광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관광욕구(needs)를 따라오지 못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수용태세는 국내관광 혁신을 위한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내 관광활성화는 점차 해외로 이전되는 국민의 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양적 대중관광에서 질적 대안관광으로의 전환에 기여

국민생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웰빙과 로하스(LOHAS)를 지향함에 따라 국내관광 부문도 양에서 벗어나 질적 관광으로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관광이 종래와 달리 단순 휴식과 기분전환을 넘어서 체험과 교육 등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내관광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집단이 출현하는 등

소비유형이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광기업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관광시장의 확산뿐만 아니라 관광행동,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정책 등 제반 관광행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심원섭, 2007)

## 2. 충남의 관광수요 전망

충남 관광객수 수요 전망은 충청남도 관광객수(인회/지점) 수요에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변화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당일관광이 절반을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2%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충남 관광점유율을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객수(인회/지점)에 대한 숙박관광객수와 당일관

광객수 변화추이를 계산한 결과, 2005년 숙박관광객 56,682천명, 당일관광객 28,636천명에서 2015년에는 숙박관광객 90,143천명 및 당일관광객 23,841천명, 그리고 2020년에는 숙박관광객 111,751천명 및 당일관광객 23,92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객수(인/일) 개념과 충남통계연보상의 관광객수(인회/지점)를 비교할 경우,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수는 2005년 2.4지점의 관광지 방문에서 2010년 1.7지점의 관광지 방문, 2015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및 2020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수준까지 떨어져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행태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단위 : 천인, 지점)

구분		년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관광객수 (인회/지점)	충남	숙박	56,682	65,992	81,073	96,825
		당일	28,636	28,223	32,911	38,854
		소계	85,318	94,215	113,984	135,679
충남 관광 1일당 목적지수(지점)		2.4	1.7	1.6	1.6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 3. 충남 관광발전의 과제

#### 1)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1)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의 균형적 배분 유도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sup>1)</sup>, 해양관광권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내포문화관광권 18.7%, 역사온천관광권 11.7%, 백제금강문화관광권 7.9%, 대도시근교권 2.9%로서 서해안 중심의 해양관광권에 57.4%가 편중되어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관광권이 서해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최근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관광객의 증가가 일시적이거나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충남지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는 관광수급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관광자원의 분포 특성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 필요

충청남도의 관광자원군 분석에서 자연형 관광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보령시, 태안군), 인문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공주시, 부여군), 레저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아산시, 부여군, 당진군), 시설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천안시, 아산시), 기타 차별화된 자원군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과 같은 5가지로 분포특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의 시군별 관광자원 분포의 차별화된 특성을 발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관광자원 환경과 사회 및 경제여건을 고려한 관광개발과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별화된 특성이 발견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의 관광매력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임명제, 2007)

#### 2)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 필요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4계절로 이용패턴 분산

충청남도의 계절별 이용성향에서는 봄 16.3%, 여름 52.1%, 가을 19.9%, 겨울 11.7%로 관광객수의 이용비율은 겨울을 제외하고,

1) 권역별 구분은 「충청남도 3차종합계획변경계획」과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적용함

행락철인 봄과 가을보다는 휴가철인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절적인 편중성을 극복하고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해수욕장 집중에서 다양한 역사·자연 관광자원에 분산 유치 필요

충청남도는 관광객들이 하절기 중심의 해수욕장 이용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85,318천명의 관광객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27,058천명으로 31.7%가 해수욕장에 집중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홍성군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되게 방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남도는 하절기 중심형 3계절 이용형태의 관광목적지이며, 계절별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코스와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수와 여름철 이용객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름철 이외에 다른 계절에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자체적인 수용대책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 필요

(1) 관광수요와 공급분석에 의한 공간개발의 효율적 추진

충남 관광공급은 관광공간과 시설들이 지정되어 왔으나 실제 조성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장소로 민박과 펜션, 모텔과 여관이 이용되고 있어 차별화되면서 고급화된 숙박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용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하나 일부

〈표 2〉 충청남도 관광수급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공급능력	647	763	1,037
최대수요	997	1,100	1,585
수급비교	△350	△337	△547

자료 : 충청남도(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의 관광객이 전세와 관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통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관광지 수급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광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동시수용력에 의한 부족분이 547천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3〉 관광개발 자원유형과 규모 비교

(단위 : km<sup>2</sup>)

구 분	전 국				충 남				
	1996		2005		1996		2005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자연 공원	국립공원	20	6,473.1	20	6,579.85	2	390.138	2	384.312
	도립공원	20	730.4	23	783.82	3	78.443	3	92.07
	군립공원	27	239.4	33	441.43	1	1.95	1	1.95
	소 계	67	7,442.9	76	7,805.1	6	470.531	6	478.33
관 광 지	153	180.2	225	153.802	20	11.942	25	13.499	
관 광 단 지	8	40.4	15	104.46	-	-	-	-	
휴양업(종합/전문)	28	25.9	34	34.61	1	1.762	3	2.11	
체육 시설	골프장	96	112.3	191	193.93	3	3.495	5	5.319
	스키장	11	11.3	14	16.42	-	-	-	-
	요트장	1	0.023	1	0.023	-	-	-	-
	승마장	4	0.037	24	0.292	-	-	3	-
	소 계	112	123.66	230	210.665	3	3.495	8	5.319 <sup>4)</sup>
도 시 공 원	9,326	885.885	10,459	1,021.102 <sup>1)</sup>	610	50.877	638	53.919 <sup>2)</sup>	
청소년수련시설	432	13.0	687 <sup>3)</sup>	-	37	1.067	40	-	
유 원 지	164	125.0	234	-	7	2.212	21	-	
자연휴양림	61	1,115.4	98	1,188.96	7	19.610	12	27.959	
관 광 농 원	294	7.3	392	-	41	0.902	37	-	
온 천 지 구	86	134.9	135	187.126	10	9.524	12	10.002 <sup>1)</sup>	
합 계	10,731	10,094.545	12,585	10,705.825	742	571.922	802	591.138	

주 : 1) 행정부, 한국도시연감, 2005 2)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3)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5  
 4) 2004년 자료, <http://tour.go.kr/> 5) 승마장 면적 계산 안 됨  
 자료 : 1)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 2)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3) 충청남도(2005), 충남통계연보 4) <http://tour.go.kr/>



〈표 4〉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감을 분석

(단위 : 명, %)

구 분	1996년 관광객수(명)	2005년 관광객수(천명)	연평균증가율(%)
해양관광권	20,755,450	48,978,931	10.0
백제금강문화관광권	4,494,893	7,953,309	6.5
내포문화관광권	4,771,279	15,987,829	14.4
역사온천관광권	8,759,553	9,946,247	1.4
대도시근교권	700,488	2,452,193	14.9
계	39,481,663	85,318,509	8.9

(2) 관광자원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공급방안의 마련

앞 〈표 3〉의 관광자원 개발규모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레저스포츠 시설과 공간이나 가족단위의 체험형의 관광자원이 충청남도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의 추진 요구

(1) 관광객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관광지원시설의 활성화 필요

주5일 근무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충남 관광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 관광객의 증감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근교권이 1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숙박여행지로서 4위를 차지

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 등록은 전국 20,694실 중 886실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로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숙박시설도 18개 업체중 10개 업체가 아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표 4〉의 분석과 같이 아산지역이 포함된 역사온천지역의 관광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자원특성과 이용수요에 적합한 관광공급 정책의 추진

앞의 〈표 4〉에서는 관광객이 지역별로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안권의 관광자원 유형별 수급분석에서도 자연휴양형, 레저스포츠형, 위락형, 해양형 관광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표 5〉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관광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서해안에서도 해양

〈표 5〉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10년
해양 관광 참여인구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해 수 욕	56,579	55,042	63,643	68,741	83,080
바 다 낚 시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03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	11,330	11,022	13,338	14,347	18,325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관광활동의 수요를 고려한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관광산업 피해 대응**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는 일본 나훗카호(1997년)의 1.7배, 한국 여

수 씨프린스호(1995년)의 2.5배 규모로, 충남 피해 6개 시군지역은 충남지역 방문 관광객의 2/3 및 관광지출액의 73%를 점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로 초기 유류유출량이 유사한 유럽 프레스티지호(2002년) 사건발생 후 1차년도 영향 Prestige호로 인한 익년도 관광파급효과에서 프랑스 남서해안은 사고 익년도에 프랑스

〈표 6〉 2000-2006년 충남 서해안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단위: 명, %)

년도	충남(전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2000	56,796,029	15,534,452	1,582,859	3,255,247	1,115,944	9,791,603	2,791,959
2001	55,284,467	12,898,383	1,586,427	2,535,613	779,278	11,150,097	3,354,602
2002	63,221,151	14,929,255	1,877,131	2,197,492	1,356,081	14,681,979	3,273,121
2003	65,861,111	15,093,676	1,922,637	3,299,755	1,577,359	14,923,253	3,673,094
2004	67,520,223	14,871,278	1,963,347	3,714,956	1,837,334	15,997,326	3,397,575
2005	85,318,509	19,156,053	2,421,684	10,133,478	2,323,354	19,689,400	4,450,435
2006	85,700,667	19,650,926	3,271,110	7,498,768	2,356,625	20,627,493	4,613,716
평균증감율('00-'06)	7.5	5.0	13.6	29.0	17.4	13.7	9.5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1996-2004년) 및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he Chungnam Review

해안지역 관광객 예약율 50% 감소 및 관광산업의 60%가 전업하였고, 스페인 Galicia지방은 사고 익년도에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하였다.

충남의 경우 기 관광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6개 시군의 관광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주요 피해지역인 태안군 관광객수는 2008년에 한 해 동안 약 40%정도 감소하고, 서해안 6개 시·군 전체로는 관광객수가 2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전화위복 기회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영문, 2007).

### 5)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 요구

#### (1) 관광행태의 변화에 적합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

충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가 또는 방학에 이용하며, 1박2일의 숙박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명승 관람(1위), 휴양과 휴식(2위), 수변과 해변활동(3위) 등이 주요 관

광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자원과 시설은 총량적인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행태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공급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도 중요하다.

최근 농어촌체험관광과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로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면서 이들 수요자 변화에 충족시키는 관광활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개성적인 관광활동의 추구하고 가족지향형으로의 관광활동 변화로 독창성 있는 저가형·가족형·체험형 관광개발, 특히 레포츠형과 같은 동적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목적지수가 점차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관광활동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1.6지점으로서 거의 한 목적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방문목적지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표 7〉 충청남도 관광지 1일당 목적지수 변화

(단위 : 지점)

구 분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충남 관광지 1일당 목적지수	3.7	2.4	1.7	1.6

자료 : 이인배·최영준(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관광자원과 시설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코스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 (2)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광활동의 확대는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관광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득계층에 따른 관광활동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우려된다.(윤양수·김의식, 2002)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주5일 근무제와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관광객들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공간과 시설, 관광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6)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충남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가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 대도시근교권 등은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반면, 역사온천관광권은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자가용 중심의

가족형 체험중심의 관광성향이 현대의 관광성향이기에 때문에 관광객의 증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의 관광환경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개선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관광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Ⅲ.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1)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 개발

충남의 지역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대표적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한다. 충남의 5대 관광권인 해양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대도시근교권 등을 관광자원 특성과 관광객 행태에 맞

도록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명소를 특화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채되어 있는 지정관광지 조성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명소관광지를 육성한다. 그리고 테마형 역사 문화자원과 종교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편익시설의 조성과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충남 여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원 조성과 학습·교육·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농산어촌 어메니티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시골 재래시장을 주말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개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각 추진시책별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시책과 개발사업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 2)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 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

### (1)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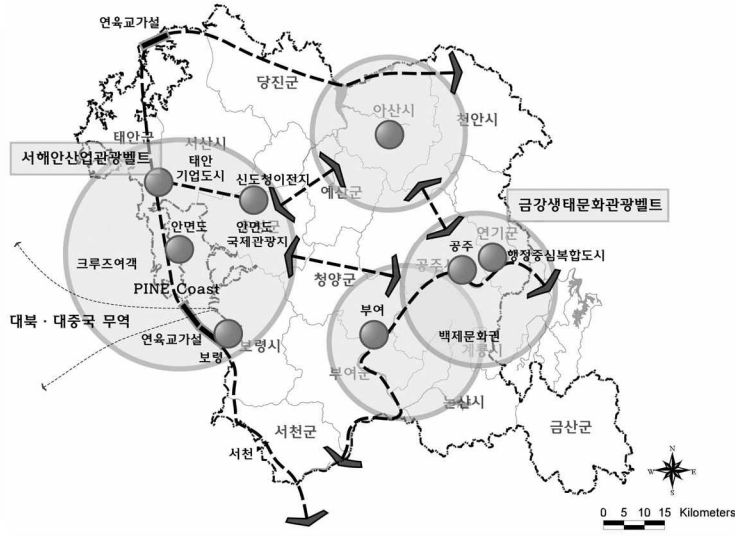
관광도시 시스템이다. 따라서 관광거점도시는 강한 집객력이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고, 사고, 먹고, 모이고, 쉬고, 관광도시를 거닐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즐

거움이 있는 콘텐츠도 구비해야 한다. 충남 역시 관광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교통, 안내 정보, 숙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거점 기능을 하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충남관광의 허브관광도시로 개발한다.(김성진, 2006)

이를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도시를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는 신관광도시로 개발한다. 그리고 아산은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도시를 개발한다. 내륙으로는 백제문화권 중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개발한다. 서해안은 환황해권 관광거점 기능을 수용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휴양거점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 (2)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충남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마을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위도와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의 세계적 관광명소는 대부분 도시 또는 마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의 기존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소도읍과 관광마을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를 거점관광도시와 연계하는 관광루트의 관광목적지로 개발한다.



〈그림 1〉 관광거점도시 개발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그리고 특정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수용을 위해서는 관광소외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내륙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이나 특색 있는 자원발굴을 통한 녹색농촌 관광마을 혹은 테마형의 관광휴양마을, 휴양펜션 빌리지 등과 같은 테마형의 관광마을이나 관광시설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방문객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원이나 관광매력 콘텐츠 자원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한 효과적인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보다 다양한 관광매력 코스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해안의 해양관광권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광유인 루트를 개발하고, 충남과 연결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계 이용망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의 다차원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객들의 집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전략 혹은 관광클러스터화 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혹은 충북, 전북과의 광역관광연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문화관광부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프로그램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개발·이용형태 등을 지양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선정 대상으로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신청을 종합·조정하여 2개소 이내로 신청하고 이를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1개소를 선정하면, 정부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지원액의 50% 이상을 부담한다.

충청남도에서도 2007년 현재 25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관광지 중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관광지가 있으므로, 기존에 관광지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 3)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

충청남도의 관광객들은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월, 7월, 8월인 여름철에 52.1%를 차지하여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4계절로 이용패턴을 조화있게 분산하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한다.

#### ①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패턴 극복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시기적, 계절적 편중은 그간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이룩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상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름철 관광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충남은 여름철에 선호되는 해수욕장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하계 휴가 시즌이 이때 시작되어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충남관광패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이러한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  
충남관광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계절별로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계절별 관광코스과 더불어 다채로운 관광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분포를 감안하여 계절별로 특성화된 관광 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거나 계절별로 이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휴양공간 등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계절에도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발굴 접목하거나 주변 관광지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겨울바다 갯벌여행, 해수욕장 연 날리기 프로그램, 해수온수욕장 개발, 겨울바다 가족캠핑파이어 개최, 해양동굴수족관 건설, 겨울바다 보양식 상품개발 등의 역발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략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수욕장과 같은 해양관광자원 이용의 계절적 이용편중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브랜드세일 전개**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관광자원 및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이에 충남관광이 4계절 방문목적지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의 경우는 유휴관광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격할인을 통한 브랜드세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적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해수욕장 주변이나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가격 할인주간 등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계절별 특성화 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계절적 편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



경쟁력을 가진 매력관광자원이나 시설 확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겨울철과 봄철, 가을철 행락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나 자원시설의 확충을 보다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계절별 방문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권역별 혹은 거점관광지별로 테마형의 야간관광명소나 경관 등을 조성하여 주간중심의 관광패턴을 야간시간대까지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용 패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⑥ 북·융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충남관광객 이용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관광자원 개발방식으로 4계절 관광자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이 융합된 관광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각각의 “0.5차 더하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해수욕장 중심의 하절기 관광패턴을 동절기와 춘추절기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축제·이벤트 행사 등을 지역내 관광자원과 산업 등을 연계

한 북·융합 관광산업으로 개발한다. (정삼철, 2006)

**(2)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

충남의 시와 군별로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육성한다.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자원은 지역사회의 관광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충남의 청정한 자연, 아름다운 풍경, 개성 있는 문화적 전통 등의 어머니 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다움, 여유로움, 감성 등 어머니를 체험하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관광개발은 디자인이다. 관광가치를 디자인해서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충청남도 역시 관광자원의 개발은 디자인을 통해 질적 선진화를 서둘러 지역 관광개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② 관광권역별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 상품의 개발**

충남의 계절별·관광시장 지역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태안, 보령, 서천은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5대 권역중 해

양관광권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주로 여름을 중심으로 보령머드축제, 2009년에 재개최를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의 축제와 연계된 지역 관광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인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등의 지역은 봄, 가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한산모시제와 연계한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생태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은 자녀를 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또한, 문화컨텐츠 상품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 한다. 웰빙생활과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관광상품으로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역사자원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컨텐츠 상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 ③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의 권역관광개발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 관광상품의 개념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으로 분

류되며 역사관광지역으로 그 성격이 차별화된 다. 대전은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의 도시로서 그에 적합한 관광매력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광역관광권내에서 관광벨트 및 관광루트의 형성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도로 조성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새로운 관광패턴형의 항공·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루트도 구축한다.

## 4) 관광제도 개선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 추진

### (1) 관광자원 입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 제공

#### ①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추진

21세기의 도시(지역) 개발은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충남의 관광개발은 방문객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이어야 한다. 특히, 충남지역의 관광자원에서 보이지 않은 것(invisible)이 관광객을 사로잡도록 한다. 세계적 관광명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기념

비적인 건조물과 기념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로텔라이 언덕과 인어공주 동상과 같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노래와 동화)를 개발한 사례와 같이 그 동안 소프트웨어(software)보다 하드웨어(hardware)를 우선했고, 콘텐츠(contents)보다 컨테이너(container)를 중시했다면, 액터(actor)보다 프로젝트(project)에 관심을 두었던 관광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김성진, 2007).

## ②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관광개발과 홍보 추진

협치(governance)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의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규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자치단체 주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형 개발로 전환하고, 신규개발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리고 규제 합리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지역단체와 사람들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 그룹에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도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관광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역거버넌스 주도형 관광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 ③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

충청남도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는 관광상품이 부족하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역별 관광상품화 노력은 많았지만 광역적인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자체간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상품 개발과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광역적 관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이용성과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 역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 ①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충남의 거점 관광지나 초기 개발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관광지나 초기관광지의 집중적 홍보는 인근 소규모 관광지의 발전에 일단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충남 지역전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는 거점관광지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충남이 가지는 기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종합하고 소구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홍보활동의 전문성과 종합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홍보에 있어서 지자체 단체간의 합동 홍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명소화하는 데는 축제가 효과적이고 가시적이다. 지역축제는 장소를 파는 관광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충남과 시군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규모의 메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충남지역의 관광홍보 전략은 주로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옴으로써 이들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터는 이와 같은 관광홍보 전략을 충남내륙 지역의 또 다른 관광매력이나 자원요소를 보다 집중 부각시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②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자 방문은 절반 이상이 서해안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해안을 거점으로 하여 충남 내륙으로의 벨트화 또는 루트화 하여 충남관광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서해안 관광의 또 다른 특성은 성수기가 여름으로 한정 되어 비수기가 길다는 것이다. 비수기가 긴 관광지에서의 관광산업체는 경영에

압박으로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도 서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에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내륙연결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고, 이러한 루트를 관광벨트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비용이 낮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매력 요소자원의 새로운 발굴을 도모하여 집중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표브랜드와 관광매력시설이나 자원요소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분산수용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충남 관광홍보는 관광사업자나 관광분야 종사원 입장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 알려야 한다. 관광객이 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는 접근성이다. 충청남도는 서울, 수도권, 대전지역을 배후로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전 국민의 50%를 상회한다. 이런 큰 배후 지역이 1시간대면 충청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매우 우수한 접근성이다.

또 다른 충청남도 관광의 큰 장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관광, 백제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레포츠 등 동적인 관광과 휴양 등 정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하여도 우위를 가지는 것이 많다. 충청남도가 강원도보다 관광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강원도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관광홍보에 집중한 것이고 충청남도는 관광보다는 다른 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충청남도도 이제부터는 충남의 관광홍보를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 ④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목표시장으로서 충남·대전권과 서울·경기·인천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숙박관광 뿐만 아니라 당일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의 주된 테마는 가족중심의 주제로서 체험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관광의 최대화두는 체험이다. 그런데 이 체험은 우선 재미있는 체험이어야 하며 이면적으로 교육적이어야 감동을 주고 재방문

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선 홍보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설사의 적극양성도 필요하다.

충남 관광은 전국 비율에서 8.8%로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의 광역시에도 활발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 광역시 관광객의 1%대만이 충남을 찾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이 무엇일까? 충청남도 관광구심점은 무엇일까? 그런데, 백제의 옛 유적, 안면도의 소나무와 수려한 해양자원, 온양온천 등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충남관광의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존의 '느낌여행 충남'을 충남 관광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늘 가까운 충남(near-chungnam)'의 의미에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점이지대로서의 부드러운 충남, 편안한 충남을 이미지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이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충남'을 팔아야 할 것이다.

'느낌여행 충남'이 충청남도 관광 전략이라면 전술은 각 해당 해의 관광 목표를 나타내

는 것이다. 관광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것으로 관광 슬로건 아래 목표를 모두가 공유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에 맞도록 매년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또 한 분야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유통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온라인 시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은 본사가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옥션, 여행사, 항공사, 호텔, 소규모 민박업체 등도 실시간 예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단순 정보 제공기능만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사이트도 많지 않지만 민간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기법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위성영상에

기반한 경주국립공원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러한 첨단 분야를 충청남도의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 접목하여야 충청남도의 관광홍보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관광마케팅의 강화는 인접 지역간 상호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광 홍보 및 안내정보체계의 구축과 관광 마케팅 강화는 인접 시군과 통합하여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 (3) 2010년 '충남 방문의 해' 사업 추진

충청남도는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백제역사문화단지 완공 및 대백제전 개최와 2010년 행복도시 주민 첫입주, 지역내 육·해·공 교통망 완비를 목표로 2009년 이후 충남 중심을 관통하는 동서간 고속도로 완공, 2009년 당진·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크루즈 해외관광객 유치, 2010년 서산비행장 개항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하여 2010년 충남 방문의 해를 인트라바운드 선두주자로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충남방문의 해 특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0 충남방문의 해 슬로건 및 아이덴티티 개발 및 홍보, 방문의 해 홍보사이트 U-Travel 구축, 안전 관광충남 선언식 개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총회 개최와 관광관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관광회의와 관련한 PATA : 태평양아시아 관광 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ASTA(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 WTO 등 관련단체 홍보방안 강구하고, 이에 버금가는 국제 관광학술회의와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충남방문의 해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계획은 신규사업(기획, 특집), 업그레이드 관광충남, 관광인프라 개선, 현대체계 구축(환영하는 지역주민), 방문의 해 붐 조성 및 마케팅 등에 부문별로 다양한 전략사업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다.(충청남도, 2007)

#### (4) 충남 서해안을 환경관광산업 특화 지역으로 집중 개발

##### ① '환경관광특구 조성' 및 '국제 환경 관광 프로젝트(안)' 의 추진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북쪽을 환경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중인 만리포 관광지 와 사구, 갯벌, 수목원과 연계한 환경관광지구를 조성하여 환경관광명소로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오염과 희귀생태자원을 근거로 국제 환경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관광지역으로서 발전시킨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연안개발계획 등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에 태안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특구(가칭)'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세계적 환경관광명소로

#### \*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변의 환경관광특구를 위한 자원 현황

- 태안해안국립공원 : 해안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 사업
- 만리포 관광지 : 해양환경 테마관광지로 조성(조성계획 수립중)
- 신두리사구 : 천연기념물 지정, 국제보호식물 지정
- 두웅습지 : 랍사협약에 랍사르습지 신규 등록
- 천리포수목원 : 세계적인 희귀 및 보호 식물과 수목 보유
- 신재생에너지특구 :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광자원 개발
- 이원간척지구 : 화훼단지 및 웰빙관광지구 조성
- 해수욕장 :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신두리, 파도리 해수욕장 등
- 갯벌과 독살 : 갯벌과 독살 등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

- 주 : 1) 특별법에 환경관광특구사업의 내용 반영하여 제정  
 2) 태안군 환경관광특구 조성계획 등은 연구사업으로 추진  
 3) 복구에 동원된 특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관하여 추후 환경전시관 건립

- 신두리사구 : 환경부 법적보호종(보호야생동물)
- 천리포수목원 : 국제 보호종 식물과 수목 보유
- 태안해안국립공원 : 희귀 동식물 및 보호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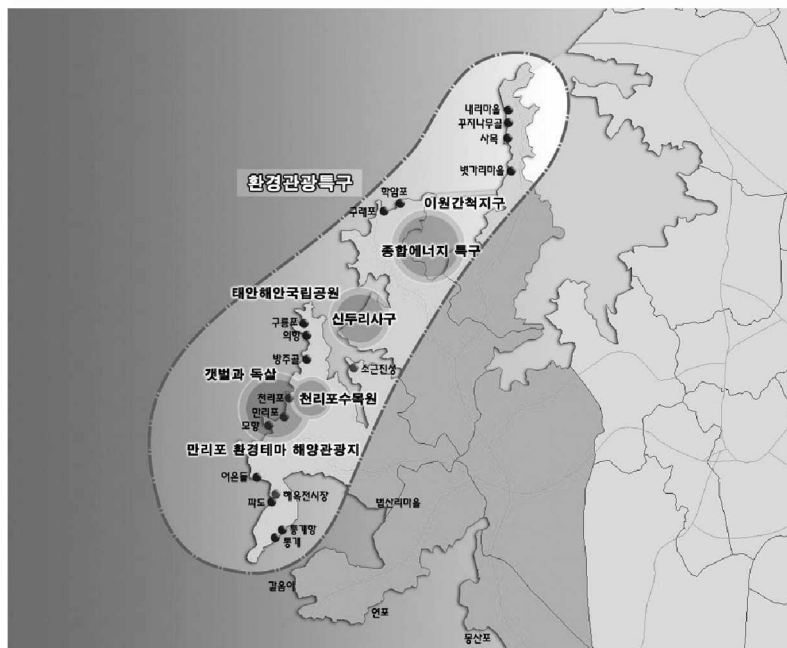
주 : 국제환경단체 및 기구와 참여와 지원사업으로 추진

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가이벤트와 자원봉사활동, 지역주

민들의 피해복구 노력 등에 관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위한 환경관광상품으로서 교육 및 체험, 기억에 남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운영해야 한다.

유류유출 피해가 복구되는 일정한 시점에서 ‘국제 해양환경엑스포’ 개최로 유류유출의 큰



〈그림 2〉 태안 ‘가칭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및 보증사업 예시 :

- 기름유출 사고지점과 이외 지역에 대한 수산물 관리와 유통
- 서해 바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증과 판매관리
- 안정성 수산물에 대한 판매촉진 사업 전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청정한 지역으로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름 오염피해를 극복한 세계적 사례지역으로 세계 각 국가들간의 공동협력과 기름오염 복구를 위한 환경산업 엑스포로서 해양오염의 극복 및 관리와 관련된 세계 환경학자와 환경사업체의 정보 교류와 교역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단체 및 기구 지원과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사명칭 및 세부계획은 2008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태안의 청정한 해양, 생태자원과 해양오염을 환경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수입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제환경단체나 기구의 참여 유도를 통해 친환경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해양오염 극복의 국제적 중요사례지로 부각될 수 있다.

② 서해안 ‘어업과 관광업 살리기’ 운동 전개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 수산물에 대한 오염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류유출’로 해당지역은 해양오염이 되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해양오염이 극복되고 난 후에는 인접 연근해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증명과 보증을 하는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수산물 판매를 촉진토록 해야 한다.

해양오염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서해안의 수산물 판매와 음식점은 당분간 동·남해안의 수산물을 대체하여 판매하고, 음식점 등에 공급하다가 해양오염의 극복되는 시점을 향하여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 추진사업 예시 :

- 유류유출 사고지 환경정비 후 ‘서해안 관광재개 선언식’ 개최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등 국민운동위원의 선언식 개최)
- 공공 및 단체 등에서 워크샵과 단합대회 등 태안에서 실시
- 유류유출 사고지를 임시 정비하여 환경교육의 답사관광 실시

및 보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서해안의 관광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을 통하여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관광활동을 하는데 유류유출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 ③ 서해안 '관광 살리기 축제 및 이벤트' 개최와 관광상품의 개발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서해안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및 계절별, 장단기 행사로서 테마와 스토리라인으로 연계하여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더불어 연중 특산물과 관광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 수시행사로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예시는 다음과 같다.

## IV. 결론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자 무형의 수출산업으로 평가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경쟁력은 물론이요 관광생명력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무차별적 무한경쟁 환경 속에 놓여 있어 보다 새롭고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관광발전을 위하여 통해 도출된 과제로는 첫째,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서해안 관광살리기 축제와 메가이벤트 사업 예시 :

- 6개월 : 자원봉사 감사 여름휴가 초대축제(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 매년(12월) : 1주년 자원봉사 대축제(1주년 + 자원봉사 축제)
- 2009년 봄(4-5월)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 2010년 : 2010 충남방문의 해 개최
- 2012년 : 국제 해양환경엑스포 개최

#### 서해안 특산물과 관광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 수시행사 예시 :

- 수산물 축제 : 계절별로 생산되는 수산물 축제의 정기개최
- 환경이벤트 : 생태 및 환경관련 이벤트 및 국제행사 개최
- 스포츠행사 : 해양스포츠, 마라톤, 항공스포츠 등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문화행사 : 지역문화행사 및 이벤트와 전통축제 등의 개최
- 기관 및 기업체 행사 :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대기업체 연수행사
- 언론 및 방송이벤트 : 상시 행사에 대한 언론 홍보와 방송이벤트 병행 개최

이 필요하다. 둘째,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 충남관광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관광하드웨어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는 관광휴먼웨어 서비스가 조화롭게 갖추어 지역관광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관광개발은 도민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 관광 이용패턴의 분산, 지역문화·정주생활과의 조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새로운 관광환경에 맞는 충남 관광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 추진,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정책의 추진방식 채택,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관광산업의 전화위복 기회 마련 등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수립을 위한 접근 개념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시장의 수요창출과 환기이다.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패턴을

극복하고,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과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브랜드 세일 전개, 계절별 특성화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복·융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과 관광권역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선택형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발굴·제공을 위하여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 진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입

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하며,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관광홍보 전담 기능의 강화,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성진, 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관광부, 2006, 2006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심원섭, 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윤양수·김의식, 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5. 이인배·최영문, 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6. 임명제, 2007, "확장형모형을 활용한 관광목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학회 4권 2호.
7. 정상철, 2007,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충남관광패턴의 극복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발제자료.
8. 최영문, 2007,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로 기름유출에 따른 2008년 충남관광 영향분석", 충남발전연구원 내부워크샵 자료.
9. 충청남도, 2007,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10. 충청남도, 2007, 「2010충남 방문의 해」.
11. 충청남도, 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12.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관광이동통계자료.
13. 충청남도, 2006, 도정백서.
14. 충청남도, 2007, 충남통계연보.
15. 한국관광공사, 200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16. 해양수산부, 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17. <http://tour.go.kr/>
18. BBC NEWS(2003년 3월 7일), Oil threat to French tourism.
19.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a and M. Xose Vazquez- Rodriguez(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The Chungnam Review